

함께 걷는 길

WITH ARAB MUSLIMS



MAY 2016
VOL.4

발행인: 김현성
편집: 정기은 디자인: 서응교
<http://www.chammission.org>
E-mail: chammission@gmail.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참 선교회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김현성 선교사님을
후원하고픈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의 후원인데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뜻 깊은 동역의 자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참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길 기억하면서
함께 걷고 싶네요. 노운태 전도사

1주년 축하드립니다. 동역자들과 성령아에서
땀물 뭍혀서 역행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요~ 아름답습니다~
무슬림들을 향한 아버지의 외침을 더욱 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배우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길 바랍니다!!^^ 이은희 전도사

참 선교회의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를 거듭해 갈수록 아랍 무슬림을 향한
한국교회의 시선과 마음이 참 선교회의 성장과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경준 전도사

참 미션 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이슬람 선교 사역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교의 강한 전사들이 되시길!
참 미션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함수같이 흐르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미션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기정서 감독(CTS)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참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삼동 감람교회 박진우 권사

1년간 선교사역에 힘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삶 속에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전병천 님

“참 선교회 1주년을 축하합니다!”

참 미션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의 첫 돌의 감격이 그 어떤 생일보다 귀하듯이,
참 미션의 1주년이 정말 귀하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만희 목사

참 선교회의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귀한 사역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능력의 주님의 함께하심이
참 선교회의 사역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영배 박사

어느새 한 살이 되었네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걷는 발걸음 되소서
행복되니터 생복대학원 박형진 교수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과 함께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하여 자기를 소망합니다.
명유정 님

요르단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참으로
귀하게 사역하는 참 훌륭한 참 선교회의
창립 1주년을 참 축하합니다.
윤정주 선교사

참 선교회의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비전과 사명으로
복음 위에 굳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윤혜진 님

이곳(캐나다)에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무슬림사역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합니다.
그 어려운 사역을 참 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고 또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이루셨을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백 두 예루살렘을 위해
그 길을 열어 드릴수 있는 귀한 선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방인영 목사

한국에서 준비해서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동역자로 기도할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지에서 수고함으로 뿌리내리시는 과정을 보면서,
또 이렇게 1주년이 되기까지의 기도의 쌓여짐과 응답의 결실이
참 감사하고 함께 축하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늘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종보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박재우, 서수경 집사

C.H.A.M MISSION 설립 1주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됨을 위하여

박동석 목사 (C.H.A.M MISSION 이사장, 감동교회 담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 이 말씀은 곧 땅 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후 수 없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 역시 그 마음과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 된 삶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따라 어둠의 나라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생각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66년 9월 5일, 대동강 쑥섬에서 조선 관군에 의해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그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던 조선에 와서 “예수, 예수, 예수” 를 외치고 성경책을 전해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스 하노버 출신으로 약관 27살에 조선의 땅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떠밀려 온 것도 아니고, 영국 왕의 지엄한 명령도 아닌데 그는 왜 그 젊은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 조선에 왔을까요?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왔고,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며 순교 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20년 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

라 목사입니다. 그들은 인천에 도착한 즉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써서 미국 감리교 본부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 아침 여기 왔습니다. 이 날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었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로 인해 조선의 어두움이 걷히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빛진자로 2015년 4월 참 선교회를 설립하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중동지역의 아랍미션은 어쩌면 140년 전 조선의 제물포 아침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슬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고 그 뜻에 반응하여 참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렇게 참선교회가 세워지고 어느덧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사랑, 격려로 사역을 도우며 서로 일면식도 없음에도 오로지 무슬림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절을 쫓아 어느 때 인가는 열매가 맺히리라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랍 무슬림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1주년 기념기사

C.H.A.M MISSION 1주년을 감사하며

김현성 선교사 / C.H.A.M MISSION 대표

지난 4월 16일은 ‘C.H.A.M MISSION’ (참 미션)의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동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본 단체가 시작되었고, 많은 이사님들과 후원자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C.H.A.M MISSION’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 주시는 많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동의 정세는 지난 몇 년간 내전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변화의 바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시리아, 이라크 등의 난민 사역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고,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아랍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역자들의 필요가 유럽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역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중동 아랍 무슬림들의 삶은 견고한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아랍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며, 더 많은 사역자가 요구되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C.H.A.M MISSION’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에 맞는 사역의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랍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 입니다.

아울러 선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회의 비전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아랍 무슬림 신자 공동체 세우기

1) 아랍 무슬림 전도 및 양육

무슬림 전도에 있어서는 일대일 복음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 믿습니다. 무슬림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무슬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 아랍 무슬림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역사의 순간이며, 그 영혼들을 양육하여 또 한명의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저희 단체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전략이며 원리입니다.



① 무슬림 가정을 위한 부부 세미나



② 무슬림 가정을 위한 부부 세미나-강의



③ 부부 세미나 참석자들

2) 아랍 무슬림 신자(MBB)공동체 지원

아랍 무슬림으로서 예수를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 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신 분은 변화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신앙으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 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요르단 본부 사무실에서 매 주 정기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지인 사역자 및 자녀 학비 지원

1) 'C.H.A.M MISSION' 은 아랍 무슬림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현지인 사역자(MBB 사역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적은 물질이나마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들과 함께 시리아 난민, 어린이, 여성, 태권도 등 필요한 사역을 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를 지원할 것 입니다.

2) MBB(무슬림 출신의 신자)의 자녀들은 일반 학교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슬람 교육에 자녀들이 노출되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이슬람 의무 교육이 없는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비의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 약간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가능한 한 이슬람의 교육에서 자유롭도록 돕고자 합니다.



④ 무슬림 가정을 위한 부부 세미나-찬양



⑤ 태권도 사역-시리아 난민 어린이

3. 장기 사역자 훈련

아랍 무슬림 전도에 관심이 있고 헌신된 자들을 중동 현지에서 사역자로 준비시킬 것 입니다. 현지 사역에 필요한 여러 주제들에 관하여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언어, 문화, 팀 사역, 영성, 성경 공부 등 여러 면에서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하며 섬길 것입니다.

4. 네트워크

'C.H.A.M MISSION' 은 단체와 단체, 팀과 팀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에서 유사점이 있는 사람들과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공동의 사역을 열어 갈 것 입니다. 현재 요르단에서 이러한 전략적 모임 정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국제 단체 뿐 아니라 한국 내 단체 및 교회들과의 네트워크의 장을 넓혀 갈 것 입니다.

'C.H.A.M MISSION' 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라면 저희는 함께 할 것 입니다. 지난 1년 동안 'C.H.A.M MISSION' 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멈출 수 없는 이 여정에 함께 걸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슬람의 여섯 믿음

김현성 선교사 / C.H.A.M MISSION 대표

이슬람 교리의 핵심을 표현할 때 5주 6신(五柱六信)이라 한다. 5주(五柱)란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가지의 의무적 행동을, 6신(六信)이란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여섯가지 믿음의 신념, 즉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슬람의 여섯가지 믿음인 6신(六信)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알라에 대한 믿음

아랍어로 ‘타우히드’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은 이슬람의 가장 핵심이다. 이슬람 성립 초기인 7세기 아라비아 반도는 다신교적 분위기와 우상숭배가 만연된 부족사회였다. 그런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무함마드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자 운명의 결정자이고, 심판자적 속성을 가진 초월적이며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알라를 전파하면서 이슬람을 발전시켰다. 이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이슬람의 5주(五柱) 중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샤하다)에 나오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구절이다. 더불어 이슬람에서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112장에 잘 나와있다.

천사에 대한 믿음

꾸란에서 천사들은 알라 신을 받들고 양식을 주관하는 임무, 심판과 부활의 날을 담당하는 임무 등 알라로부터 받은 모든 명령을 수행한다. 이들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성이 없고, 천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알라의 명령을 충실히 실행한다. 또한 알라의 계시를 예언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며, 인간들의 행실을 관찰해서 기록한다. 이를 믿는 무슬림들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따라 다닌다고 믿는다. 한 천사는 선한 행위, 다른 천사는 악한 행위를 기록해서 사후에 알라에게 보고한다고 믿는다.

선지자에 대한 믿음

꾸란에서는 알라가 많은 선지자와 사도를 보냈다고 한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무슬림은 124,000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라고 생각한다. 그 중 가장 위대한 최후의 선지자는 무함마드이고, 그를 완성자라고 믿는다.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한가지 목적, 즉 알라의 복음인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포고하도록 알라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무슬림들은 예수에 관해서는 그는 절대 신일 수 없으며, 알라의 기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로서 아담과 다름없는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믿는다.

경전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내려 그 시대를 이끌었다고 한다. 이 중 중요한 경전은 모세의 율법(토라), 다윗의 시편(자부르), 예수의 복음서(인질), 무함마드의 꾸란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 무함마드 이전의 3권의 경전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알라가 마지막 경전으로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꾸란은 가장 새로운 형태이자 이전에 계시된 성경을 포함한 가장 완벽한 경전으로서, 심판의 날까지 그 기록과 전승이 보존된다. 무슬림들은 성경을 존중하나 꾸란과 같은 책은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꾸란이 최후에 완성된 신의 계시라는 것이다. 꾸란은 신약보다 약간 짧으며 총 11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

최후의 날은 심판과 부활의 때이다. 무슬림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알라의 자비가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 믿는다. 예를 들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이슬람의 의무를 지키는 것, 메카로의 성지순례 등의 행위를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무슬림인들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따르고 복종하는 자들은 패락의 천당, 혹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천국에 갈 것이라 믿고, 반면에 알라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심판자인 알라가 각 인간이 행한 것들을 저울질 할 것이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선지자들이나 예수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로지 무함마드만이 이미 낙원에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서지 않는다고 믿는다.

천국에서 그들은 폭신한 침대에 기대어 쉴 것이며, 아름다운 처녀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한다. 그리고 좋은 과실과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평안을 누리고, 또한 남자들은 각자가 원하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운명에 대한 믿음

무슬림인들은 인간 만사와 운명,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까지 알라의 예정으로 본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신이 정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꾸란 8:15). 이와 같이 무슬림들은 인간의 선과 악, 행동 등 모든 것이 알라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숙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알라의 믿음에 자신을 맡기라는 꾸란의 말처럼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운명의 교리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인도해주며 신에게 절대 복종함으로 모든 일의 성공을 신의 섭리에 맡기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미래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말 끝에 반드시 “인샬라” (Inshallah, 알라의 뜻이라면)를 언급함으로 모든 일이 알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한다.



기획특집



ISLAM around us ❶

미디어 속의 이슬람

손미정 / C.H.A.M MISSION 스텝

여러 해 전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마을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사촌 동생이 이웃에 사는 형의 아내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의아한 일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그 남자가 경찰서로 도망을 쳤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광객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사회적 악습인 무슬림의 “명예 살인”이 두려워진 범인은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자 경찰서로 직행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는 것인데, 법보다 우선하는 무슬림의 교리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다. 합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인들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처벌 방식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리고는 곧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그 사건이 있던 어느 마을을 지나가며 가이드가 해준 이야기였을 뿐이었고 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아직 미개한 문화를 가진 낯선 종족들의 에피소드 중 하나 이겠거니 했던 것이라.

그로부터 5년 후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직접 무슬림의 삶을 접하며 인도네시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피부로 와 닿았다. 시리아 내전으로 본국에서 떠밀려 온 시리아 난민들은 요르단 국경지대 중 한 곳을 거점으로 군락을 형성하여 유엔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난민촌에서는 그런 그들의 삶에 한 가닥 희망이라도 심어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의 태권도였다. 필자는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방과 후에는 가정 방문을 하며 가족들을 만나곤 했는데, 한국의 7, 80년대를 떠오르게 할 만큼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닮아 있음을 느꼈다.

대가족이 함께 살았고 가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코란의 교리를 철저히 따르며 살고 있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코란에 대한 맹신으로 벌어지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그들을 다시 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이며 전통인 삶의 양식을 개인이 비판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잠시 그들을 잊고 있던 어느 날,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무슬림, 이슬람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 여겼었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태양의 후예"에서는 잠깐씩 재난 지역 무슬림의 삶이 등장했는데,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이 다소 가볍게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생겼다. 한 예로, 재난 지역에 파견된 의사가 무슬림의 지도자를 수술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가적 안보가 좌우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무슬림 지도자의 담당 의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개복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는 30분 후에 죽을 수도 있다. 의사인 주인공의 의지로 한국 군인들과 무슬림 지도자의 경호원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던 상황에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해피엔딩이 된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무슬림 지도자의 몸을 함부로 개복할 수 없는 이유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극중 악역 캐릭터가 자신의 거래 고객에게 뇌물로 바치는 "빨간 장미"가 빨간 드레스를 입은, 곧 숙녀가 될 여자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단지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만 비춰질 뿐이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분쟁지역에서 가난하게 사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준다. 그녀는 폭탄의 파편 조각을 빨고 있는 아이가 안타까워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을 주었을 뿐인데 주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달려들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요구했다. 그리고는 잠시 여주인공이 당황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 장면에 대한 부연 설명 역시 없었다. 이 드라마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무슬림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문화 자체도 미개한 듯 비춰졌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 무슬림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세계적 갑부, 영향력있는 정치적 지도자인 무슬림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무슬림인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나는 한 드라마의 디테일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슬림에 대한 개념이나 기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앞서 언급한 장면들은 주연 배우들의 애절한 감정을 돋보이게 만드는 소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드라마에 비춰진 무슬림의 모습이 마치 전 세계에 퍼져있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전쟁 고아를 보고 간 외국인들이 한국엔 거지만 산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인살라"라는 말이 있다. "신의 뜻대로"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그 의미 뒤에 가려진 맨 얼굴은 어이가 없다. 너와 내가 만날 약속을 했더라도 약속 당일 신의 뜻이 없다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더라도 죄책감을 갖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쓰이는 것이다. 자, 이제 무슬림이 궁금해지지 않는가? 앞으로 우리는 한국 입성을 꿈꾸는 할랄을 반대하기에 앞서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어릴 때부터 코란을 읽고 외우며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무슬림의 삶 전체를 보고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김쌤의 이슬람 TIP



음...가야죠. 가고싶어요. 인살라~~~

압둘라.방학인데 여행안가? 너 예전부터 여행가고 싶어 했잖아.

'인살라'의 뜻이요??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인살라' 라는 뜻이 뭐야? 너 그 말 자주 하잖아.

인살라 (Inch'allah) 라는 말은 우리 무슬림들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때 자주 쓰는말 이에요.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한다면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김쌤 잠시만요. 전화가...

따리랑- 따리랑-

어, 오랜만이다 잘지내지?

그래 인살라~

1년전부터 여행간다더니 언제 갈라나? 인살라... 참... 애매한 말이네.

~인살라~

~내일 만나자고? 인살라~

하싼의 아랍어 TALK TALK

이름	대 화	해 석	아랍어 대화	이름
왈리드	마르하바!	안녕하세요!	مرحبا .	وليد
하 썬	마르합틴, 키팅?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مرحبتين وليد , كيفك؟	حسن
왈리드	타맘, 하디 자우즈티 누르, 워 하들 아울레다; 하디 입니 함자 워 하디 벤티 아말.	잘 지내요. 이쪽은 제 아내 누리고, 제 자녀들 입니다. 아들 함자와 딸 아말입니다.	تمام, هادي زوجتي نور و هديل اولادي; هادا إبني حمزة و هادي بنتي أمل	وليد
하 썬	마 샤 알라!	와우! 정말 멋집니다!	ما شاء الله !!	حسن
왈리드	누르, 하디 우쓰타즈 하싼 민 우르든.	누르, 이쪽은 요르단에서 오신 하싼 교수님이예요.	نورا! هادا أستاذ حسن من الأردن.	وليد
누 르	아하란 워 싸할란, 우쓰타즈 하싼.	안녕하세요, 하싼 교수님.	أهلاً و سهلاً أستاذ حسن	نور
하 썬	아할란 픽키.	반갑습니다.	أهلاً فيك.	حسن





선교회소식 & 기도제목

C.H.A.M. Mission 창립 1주년

아랍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C.H.A.M. Mission이 4월 16일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및 사역보고

2016년 6월 2일 오전 7시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및 사역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회 스텝 모집

본 선교회의 행정지원(리서치, 영상)에 헌신할 Staff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강해정 총무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및 후원자 모집

본 선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회원 및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회원과 후원자로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지와 아랍 및 중동 무슬림 사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시 제공해 드립니다. 더 많은 재정과 후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①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본부 사역 팀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사역을 위한 훈련자들이 동원되도록)
- ③ 현지 문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④ 현지인 사역자와의 선한 동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대표 선교사 가정의 안전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소식 & 기도제목

- ①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시리아 난민과 요르단 빈민을 위한 문화센터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③ 현지인 사역자들과 선한 동역이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④ 매주 목요일 MBB(무슬림 출신의 신자)들과의 성경공부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C.H.A.M. 선교회 장기 선교 훈련생이 모집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사후원 (1-4월)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형진 교수(햇빛트리니티)
손병규 목사(헤브리처치)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 닻)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개인후원 (1-4월)

김현성, 김현진, 김위식
노윤태, 명유정, 박희선
이난희, 이숙영, 이영배
이윤이, 임지아, 장시훈
전병천, 정기은, 최복동
하승연 이상 가나다 순

C.H.A.M 이사회

이사장 :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고문 : 강정식 목사(새성남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총무 : 박형진 목사(햇빛트리니티신대원)
서기 : 손병규 목사(헤브리치치)
감사 : 최환열 집사(온누리교회)
이사 : 김만석 장로(감동교회),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남형열 목사(주님교회),
류중상 목사(작전중앙교회), 문단열 전도사(어메이징그레이스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진우 집사(주영광교회),
박희철 목사(함께하는가정운동본부),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신현 목사(강은교회),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빛교회),
이규한 목사(목양교회), 이은상 목사(은혜동산교회),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정진오 목사(금발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추중식 목사(법인재단하늘채), 하두형 목사(영국침례대한인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

C.H.A.M 스텝

대표 : 김현성
총무 : 강해정
행정/재정 : 전영주
문서/편집 : 정기은
회원 관리 : 정연심
디자인 : 서응교
미디어 : 손미정, 최봉은

아랍 무슬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Come & Help Arab Muslims

후원방법1: 1 + 1 + 1 후원

월 1만원 재정후원 + 1일 1분 기도후원

후원방법2: 자물후원 (월 자동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24701-01-412754 / 예금주: 김현성(C&H A.M MISSION)

-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담당자: 강해정 총무/010-8730-8624)

장선교사
훈련모집

장소 : 요르단

기간 : 2년

절차 : 서류 전형/ 사전 인터뷰/ 현장 리서치(약 2주)/ 최종 인터뷰/ 훈련 참여

훈련 참여가 결정 되면 이사회를 거쳐 본 단체 파송 선교사로 허입 됩니다.



C.H.A.M

Come & Help Arab Muslims

C.H.A.M 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구호 아래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헌신된 단체입니다.

이메일 | chammission@gmail.com

홈페이지 | www.chammission.org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2-92058

선교회 연락처 | 010-8730-8624 (강해정 총무)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